

세조의 금강산과 상원사 거동에서의 신이영응 설화에 대한 검토 - 상원사중창과 강원도 거동을 중심으로

염중섭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kumarajiva@hanmail.net

- I. 서론 - 세조의 상원사중창과 강원도 거동
- II. 금강산 담무갈보살 친견기록에 대한 분석
- III. 상원사 거동과 관련된 설화 분석
- IV. 결론 - 세조 설화의 상징과 내포의미

요약문

상원사는 신미와 학열의 주도로 1456~1466년에 세조의 원찰로 중창된다. 이 중창의 결과 1466년 윤3월 17일에 상원사에서 낙성식이 거행된다. 세조는 낙성식 참석에 겸하여 강원도 거동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세조는 금강산과 오대산에서 다수의 불교적인 신이영응 현상을 경험하고, 또 이적과 관련된 설화를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세조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불교를 대표하는 두 성산(聖山)에서 다양한 신이영응을 경험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물론 이러한 내용 중에는 단순히 설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도 있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이영응 양상에 대한 상징적인 내포의미를 모색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II장에서는 세조가 금강산에서 경험하는 신이영응의 내포의미를 모색해 보았다. 특히 세조가 담무갈보살을 친견했다는 기록을 고려 왕건의 담무갈 친견 기록과 유사한 상징성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왕통(王統)에 대한 불

교적인 타당성 변증이라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세조와 관련된 상원사 설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 또한 왕위찬탈자이자 불교신봉자였던 세조에 대한 불교적인 당위성 강조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세조가 강원도 거동에서 경험한 신이영응을 일관하는 구조 속에는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왕위의 정당성 부여라는 상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조가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불교적인 신앙을 가진 군주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적인 부분이 세조의 왕위찬탈 정당성에 기여하는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충분한 연구의의를 확보하게 된다.

주제어

曇無竭, 文殊, 五臺山, 王建, 學悅, <上院寺重創記>,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I. 서론 - 세조의 상원사중창과 강원도 거동

세조가 상원사를 원찰로 삼아 중창하는 것은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대작불사이다. 이 중창은 1465년(세조 11) 3월에 시작되어, 1466년(세조 12) 윤3월까지 1차로 완료돼 17일에 낙성식이 거행된다.¹⁾ 이때에 맞춰 세조는 상원사에 거동하는데, 전후해서 강원도를 순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게 된다.²⁾ 세조의 상원사중창은 정희왕후에 의해서 시작되어 신미와 학열에 의해 주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1475년(성종 6) 김수온이 어명을 받고 작성한³⁾ <상원사중창기>를 통해서, 전후의 상황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김수온은 상원사중창의 주관자인 신미 즉 김수성(金守省)의 동생으로, 세조의 강원도 순행을 직접 호종했던 신하 중 한명이다. 그러므로 <상원사중창기>는 사실을

1)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始於乙酉三月。告訖於翌年丙戌。”;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17日 戊子 1번째 記事, “幸上院寺。”

2)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3月 16日 丁巳 2번째 記事 ~ 閏3月 25日 丙申 1번째 記事.

3)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公衲衣飄然南邁。請作記傳遠。於是。命臣筆其事。… 然光奉聖旨。不敢以文拙辭。”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원사증창기>는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낙성식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조의 상원사증창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1차 자료인 국보 제292호 <오대산상원사증창권선문[일명 御牒]>이 존재한다. <상원사증창권선문>의 신미 ‘권선문’ 말미에는 “천순팔년납월십팔일(天順八年臘月十八日)” 즉 1464년 12월 18일이라는 명확한 연대가 적시되어 있다.⁴⁾ 그럼에도 이는 권선문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증창과 관련된 시말을 전부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상원사증창권선문>은 <상원사증창기>를 보충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오대산사적기』 안에는 「아조본산사적(我朝本山事蹟)」이라고 해서, <상원사증창기>와 <상원사증창권선문>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여기에 오대산적인 기록이 추가된 문건이 한 건 더 존재한다.⁵⁾ 즉 세조의 오대산증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원사증창기>·<상원사증창권선문>·「아조본산사적」의 총 3가지 문헌이 존재하는 셈이다.⁶⁾ 여기에 『세조실록』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상원사증창과 관련된 언급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세조의 강원도 순행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세조의 상원사 증창은 다음과 같은 사건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1464년 4월에 세조의 병환이 10여일이 되도록 차도가 없었다.⁷⁾
- ② 왕비인 정희왕후가 속리산 복천사(福泉寺)에 주석하던 신미와 학열

4) <한글본>에는 年代만 기록되어 있고, <한문본>에는 年代 다음에 “信眉·學悅·學祖·行湛·性敏”의 관련자 5인에 대한 측면이 追記되어 있다.

5) 韓國木簡學會 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月精寺, 2014), pp.38-51.

6) 康仲燮, 「世祖의 上院寺重創과 上院寺重創勸善文에 대한 검토」, 『韓國佛敎學』 제81집(2017), pp.254-263쪽.

7) 『拭疣集』 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天順建元之八年四月。我世祖惠莊大王。不豫彌旬。”

등을 불러 세조의 원찰 건립을 의논한다.⁸⁾

- ③ 신미가 당시 화재로 피해를 겪어 있던 상원사의 중창을 건의한다.⁹⁾ 정희 왕후가 허락하고 세조에게 보고하자, 신미와 학열·학조는 세조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개인적인 의(衣)·발(鉢) 등을 팔아서 먼저 불사에 착수한다.¹⁰⁾
- ④ 중창이 시작된 후 세조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정희왕후는 오대산의 산령(山靈)과 불화(佛化)에 감읍한다.¹¹⁾
- ⑤ 세조가 이 상황을 전해 듣고 감동하여 어의(御衣) 몇 벌을 하사하는 한편, 국인(國人)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후원으로 방향을 수립한다.¹²⁾
- ⑥ 신미가 1464년 12월 18일에 ‘권선문’을 쓰고 본격적인 모연에 돌입한다.¹³⁾
- ⑦ 1464년 12월 22일 상원사중창에 필요한 물목으로 정철(正鐵) 2만5천근·미(米) 5백석·면포와 정포 각 5백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개진된다.¹⁴⁾
- ⑧ 1464년 12월 22일부터 1465년 1월 초 사이에 세조가 직접 ‘공덕소(功德疏)’를 작성해서, 중창불사의 시주를 대신들에게 권면한다.¹⁵⁾
- ⑨ 1465년 2월 20일 경상도와 내수소(內需所)의 물자 정철 1만5천근·중미(中米) 5백석·면포 5백필·정포 5백필을 지급하였다.¹⁶⁾ 이 기록은 ⑦

8) 같은 책, “太王太妃殿下憂懼。遣內官咨於慧覺尊者信眉，大禪師學悅等。雖中外寺社。作法祝上。皆然。于欲於名山勝地。創一伽藍。以爲別願之所。如有國家祈請。則就之於此。卿等遊歷四方。必知其處。其缺實聞。”

9) 같은 책, “信眉等對曰。臺山。我國名山。而中臺上元。地德尤奇。僧徒結際。必有警枕之異。不幸廚人失火。化主力寡。急於取辦。僅得此人。若因其舊基改構。廣其規制。以爲一山名刹。當其祈祝。別降香幣作佛事。無如此寺便。”

10)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功德疏-潘邸以來我慧覺尊者早相知遇。”; “勸善文-某等竭衣鉢之貯。重創於是寺以爲祝釐之所。”

11) 『扶菴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既而。世祖疾間。漸至平善。太王太妃殿下且驚且喜。疑其山靈佛化默感於一言之頃。”

12) 같은 책, “世祖親製功德之疏頒示。宗親宰樞。欽承聖旨。占出所有。仁粹王妃殿下。承兩殿注意之隆。益施租五百石。以濟其乏。於是。悅公早作夜思。躬加督勉。始於乙酉三月。告訖於翌年丙戌。”

13)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勸善文-天順八年臘月十八日。”

14) 『世祖實錄』卷34, 1464년(世祖 10) 12월 22日 辛丑 1번째 記事, “賜僧信眉正鐵五萬五千斤、米五百石、綿布·正布各五百匹。”

15) 世祖의 ‘功德疏’는 重創관련 物目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1465년 12월 22일부터 物目이 실제로 지급되는 1466년 2월 20일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正鐵 四萬五千斤이 施主秩에 쓰여진 전국적인 名單者들에게 의해서 추렴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功德疏’의 작성은 아무리 늦어도 1월 초 이전이 되어야 한다.

에서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정철 4만근이 부족하다. 이 4만근은 <오대 산상원사증창권선문>의 시주질에 등장하는 여성 16인과 남성 233인의 시주에 의해서 모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또 이 작업은 상원사증창의 낙성식이 이루어지는 1466년 윤3월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⑩ 1465년 3월에 본격적인 복원공사가 시작된다.¹⁸⁾

⑪ 1466년 윤3월 17일에 약 1년 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상원사증창이 완료되어 성대한 낙성식이 베풀어진다.¹⁹⁾ 당시 낙성식비용은 미(米) 5백석과 포 1천필이었으며, 이는 세조가 추가로 보시하였다.²⁰⁾

세조는 상원사 낙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순행에 나서게 된다. 세조가 순행과정에서 경유한 곳은 『세조실록』 권38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²¹⁾ 이 순행에서 확인되는 불교성지는 금강산(담무갈-법기)과 낙산사(관음), 그리고 오대산(문수)의 총 3곳이다.

이를 날짜별로 제시하면, 1466년 3월 20일에 어가는 금강산의 동구(洞口)에 이르렀으며, 본격적인 금강산 참배는 21일에 이루어진다. 이때 장안사→정양사(正陽寺)→표훈사를 참배했으며,²²⁾ 이후 회양(淮陽)과 통천(通川) 등을 거쳐 고성온정(高城溫井)의 행궁에서 오래도록 유숙했다. 그리고 달이 바뀐 윤3월 6일에 금강산 유점사를 순례한 뒤 고성 행궁으로 되돌아간다.²³⁾ 즉 『실록』에서

16) 『世祖實錄』卷35, 1465年(世祖 11) 2月 20日 丁酉 3번째 記事, “僧信眉構江原道 五臺山 上元寺, 命承政院, 馳書慶尙道觀察使, 給正鐵一萬五十(千의 誤)斤, 中米五百石, 又命濟用監, 給絁布二百匹, 正布二百匹, 內需所給綿布三百匹, 正布三百匹。”

17) 廉仲燮, 「世祖의 上院寺重創과 上院寺重創勸善文에 대한 검토」, 『訓民正音(한글)과 佛敎』(서울: 韓國佛敎學會 訓民正音 頒布[1446] 570週年 特別企劃 세미나 資料集, 2016), p.224.

18)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天順建元之八年四月。”

19) 『五臺山事蹟記』, 「我朝木山事蹟」, “都山請衆三百餘名. 供養布施. 諸庵及兩寺(月精寺와 上院寺)散糧. 其日齋後. 上親幸至獅子庵. 御袞龍袍上寶宮行香拜禮. 供養布施. 是夜光放動地瑞祥非一. 上且驚且喜. 至七日親幸上院寺. 供養布施. 因駐蹕環山封標賜牌. 又賜下田畚奴婢十五口雜役塩盆.”

20)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賜米五百石布一千匹. 使衣鉢座具湯藥四事咸備. 聚韻釋五十二員. 大說落成會.”

21)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3月 16日 丁巳 2번째 記事 ~ 閏3月 25日 丙申 1번째 記事.

22) 같은 책, 3月 21日 壬戌 1번째 記事, “幸長安寺, 又幸正陽寺. 還至表訓寺, 命刊經都監, 設水陸會.”

23) 같은 책, 閏3月 6日 丁丑 1번째 記事, “幸楡岾寺, 道上遇雨. 夜還行宮.”

확인되는 세조의 금강산 참배사찰은 장안사·정양사·표훈사·유점사의 4곳인 것이다.²⁴⁾ 『실록』의 기록만으로는 장안사·표훈사·유점사와 더불어 금강산 4대 사찰로 칭해지는 신계사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세조는 고성 행궁에 장기 체류하다가 간성杆城 등을 거쳐 윤3월 13일에는 양양의 낙산사를 참배한다.²⁵⁾ 그 뒤에 강릉을 거쳐 윤3월 16일에 오대산의 동구에 도착한다. 당시 오대산에는 행궁이 차려졌는데, 이 행궁이 위치하던 곳은 ‘성오지원(省鳥之原)’으로²⁶⁾ 이곳은 오대산 입구의 성오坪(省鳥坪)이다.²⁷⁾ 또 성오坪의 동쪽에 위치한 인근지역에서는 윤17일에 특별시가 치러진다.²⁸⁾ 이곳이 바로 만과봉(萬科峰)이다.²⁹⁾ 윤17일은 상원사의 낙성식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다.³⁰⁾ 즉 오대산 특별시는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중창을 기념하는 의미의 시험이었던 것이다. 세조는 오대산 행궁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 윤18일에 별시의 합격자를 발표한 뒤, 출발해서 윤19일 횡성으로 이동해 강릉과 원주를 거쳐 윤25일에 서울로 환궁한다.³¹⁾

그런데 세조는 금강산과 오대산의 참배과정에서, 많은 이적의 기록과 설화를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두 산에서 공통으로 경험한 것은 사리분신·우화(雨

24) 『金剛山禮法起眞身』에는 摩訶衍에도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能和, 『金剛山禮法起眞身』, 『譯註 朝鮮佛教通史5』(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pp.623-624.

25) 『世祖實錄』卷38, 閏3月 13日 甲申 1번째 記事, “幸洛山寺.”

26)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世祖(祖의 誤)巡行江原. 駐蹕於山下省鳥之原.”

27) 省鳥坪은 溟州地域의 태양승배와 관련된 巫敎적인 聖地로, 新羅下代에 五臺山信仰을 정비하는 寶川과 孝明이 五臺山 隱居에 앞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臺山五萬眞身-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臺山月精寺五類聖塚』(『大正藏』49, pp.998下-1000上); 廉仲燮, 『五臺山 文殊華嚴 신앙의 특수성 고찰』, 『韓國佛敎學』 제63호(2012), pp.23-24.

28) 『五臺山事蹟記』, 『我朝本山事蹟』, “幸至山下十里省鳥坪東小峰大學文武科於. 是盛事畢矣.”; 『世祖實錄』 38, 1466年(世祖 12) 閏3月 17日 戊子 2번째 記事, “上還行宮. 命叔舟、繼禧、思愼, 詣文科試場參試.”

29) 당시 科擧에 응시한 사람이 1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후 科擧場을 萬科峯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萬科峯의 표기는 18C에 製作된 寶物 제1591호 <海東地圖> 등에서도 확인된다.

玆玄, 『五臺山을 가다』(서울: 曹溪宗出版社, 2016), p.85.

30)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17日 戊子 2번째 記事, “幸上院寺. 王世子與孝寧大君 補、永膺大君 琰、勿巨尹 徹、蛇山君 灝、領議政申叔舟、上黨君 韓明淪、左議政具致寬、仁山君 洪允成、中樞府同知事金守溫·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士愼)等隨駕.”

31) 같은 책, 閏3月 19日 庚寅 2번째 記事 ~ 閏3月 25日 丙申 1번째 記事.

花)·감로·이향(異香)의 총 4가지이다.³²⁾ 이 중 사리분신은 사리를 모신 곳에 좁쌀 같은 사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리가 증과하는 것을 의미한다.³³⁾ 또 우화는 꽃비가 내리는 것으로 천화란추(天花亂墜)라고도 하며, 감로는 촉촉한 이슬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³⁴⁾ 그리고 이향은 기이한 향기가 풍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적들은 금강산과 오대산에서 모두 경험한 것이라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금강산에서만 경험한 특징적인 신이영웅으로는,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³⁵⁾ 또 오대산과 관련해서는 『실록』에는 없지만, ‘고양이가 세조의 길을 막아서 자객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었다’는 설화와 ‘문수동자를 친견한 후 창병이 나왔다’는 두 가지 설화가 유전되고 있다.³⁶⁾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조는 금강산과 오대산 말고도 관세음보살의 도량인 낙산사에도 행차하고 있다. 그러나 낙산사와 관련해서는 “낙산사에 행차했다”라는³⁷⁾ 간략한 기록 이외에는 이렇다할 내용이나 설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금강산과 오대산의 불교가 세조와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강산과 오대산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입각해,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개산된 산 전체가 성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성지이다.³⁸⁾ 물론 강원도의 오대산은 선덕(여)왕 때의 자장이, 중국의 오대산을 순례하는 과정에

32) 같은 책, 閏3月 28日 己亥 3번째 記事, “五臺、上院、月精、西水精、彌智山、龍門、上院寺叢林、舍利、雨花、甘露、異香等瑞, 復如前。”; 『五臺山事蹟記』, 「我朝本山事蹟」, “都山請衆三百餘名。供養布施。諸庵及兩寺(月精寺와 上院寺)散糧。其日齋後。上親幸至獅子庵。御哀龍袍上寶宮行香拜禮。供養布施。是夜光放動地瑞祥非一。上且驚且喜。”

33) 前後에 增顆된 舍利의 數가 무려 7,817枚나 된다고 한다.

『世祖實錄』 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28日 己亥 3번째 記事, “前後所得, 總七千八百一十七枚。”

34) 『續高僧傳』 卷24, 「護法下-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圓勝)」(『大正藏』50, p.639下), “晚又於龍皇寺講菩薩戒本。七日七夜天降甘露。雲霧奄藹覆所講堂。”

35) 『世祖實錄』 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28日 己亥 3번째 記事; 李能和, 「金剛山禮法起眞身」, 『譯註 朝鮮佛教通史5』(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pp.623-624.

36) 李能和, 「月精寺見文殊童子」, 『譯註 朝鮮佛教通史5』(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pp.625-628.

37) 『世祖實錄』 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13日 甲申 1번째 記事, “幸洛山寺。”

38) 『大方廣佛華嚴經』 卷29, 「菩薩住處品第二十七」(『大正藏』9, p.590上); 『大方廣佛華嚴經』 卷45, 「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大正藏』10, p.241中).

서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고 개산되는 곳이다.³⁹⁾ 즉 「보살주처품」에 입각한 중국오대산의 비정에 따른 파생양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⁴⁰⁾

이러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성산에서 세조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고, 각 성산의 신앙적 주체인 보살을 친견하거나 친견했다는 설화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와 상징이라는 두 방면 모두에서 충분한 검토의의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다.

II. 금강산 담무갈보살 친견기록에 대한 분석

1.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기록 분석

세조는 금강산에서 담무갈보살을 친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세조실록』 권38의 〈세조가 일본국왕에게 부치는 글〉과⁴¹⁾ 「금강산예법기진신(金剛山禮法起眞身)」에서 확인가능하다.⁴²⁾ 이 중 이능화의 기록이 최근에 기록된 것으로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실록』의 내용은 당대의 자료인 동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금강산예법기진신」의 일부마저 사실성을 담보 받아 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록』의 세조 담무갈 친견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세조의 금강산행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대산행에 앞선 3월 20일의 금강산 동구와 21일의 장안사 → 정양사 → 표훈사 참배. 그리고 윤3월 6일의 유점사 순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중 세조가 언제 담무갈보살을 친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⁴³⁾ 왜냐하면 세조의 친견기록은 이때가 아닌 윤3

39) 廉仲燮, 「慈藏의 中國五臺山行에서 살피지는 文殊의 가르침 검토」, 『佛教學報』 제76집(2016), pp.6-20.

40) 廉仲燮, 「한국불교 聖山인식의 시원과 전개-五臺山·金剛山·寶蓋山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126호(2017), 參照.

41) 『世祖實錄』 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28日 己亥 3번째 記事.

42) 李能和, 「金剛山禮法起眞身」, 『譯註 朝鮮佛教通史5』(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pp.623-624.

월 28일의 <세조가 일본국왕에게 부치는 글>에서야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의 해당부분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화엄경』 속의 소위 담무갈보살이 그 1만2천보살 권속들과 더불어 상주설법(常住設[說]의 誤)法) 한다는 곳이 곧 차산(此山)이다.

② 내가 지방을(순행해서) 살피는 과정에서 이 산에 이르러 삼보에 첨예(瞻禮)하였다. (미처) 산록(山麓)에 이르지 않았는데 ①대지가 진동하였고, 동문(洞門)에 들어서니 ②서기가 두루하고 상운(祥雲)이 요요(繚繞)하였다. ③하늘에서 4화(四花)가 비처럼 내리는데⁴⁴⁾ 크기가 오동잎 같았으며, ④감로가 두루 뿌려져 초목이 목욕한 것과 같았다. ⑤일색(日色)이 열은 황색을 띠니 안계(眼界)가 모두 금색을 이루었으며, ⑥이향(異香)이 훈창(薰暢)하고 대광명이 펼쳐서 산곡(山谷)이 타오르는 것처럼 빛났다. (때마침) ⑦선학(仙鶴)이 쌍으로 날아올라 운제(雲際)를 선회하니, 산중 제찰(諸刹)에서 ⑧사리가 분신하여 오색을 모두 갖추었다. 이에 명양승회(明揚勝會)를 베푸니, 위에서 언급한 종종(奇瑞)과 같은 (현상들이) 중현(重現)하였다.

③ 또 담무갈보살이 있어, 무수한 소상(小相)으로 나타났다가 다시금 대상(大相)으로 나타나 길이가 하늘에 뻗었다.⁴⁵⁾

위의 인용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①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입각하여 금강산이 담무갈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도량이라는 점을 밝

43) 「金剛山禮法起眞身」에는 世祖가 長安寺에서 摩訶衍으로 가는 도중에 空中에서 曇無竭菩薩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實錄』의 小相과 大相의 現像기록과는 차이가 있어 후대에 說話의으로 潤色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는 정확한 判斷根據로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44) 여기에서의 四花란 曼陀羅·摩訶曼陀羅·曼殊沙·摩訶曼殊沙의 華四種天華를 의미한다. 『妙法蓮華經』 卷1, 「序品第一」(『大正藏』9, p.2中).

45) 『世祖實錄』 卷38, 1466年(世祖 12) 閏3月 28日 己亥 3번째 記事, “我國有名山, 曰金剛, 東臨大海, 亭亭削白. 金湧雲表, 高廣不知幾由旬.) <華嚴經>所謂曇無竭菩薩, 與其萬二千菩薩眷屬, 常住設法者, 卽此山也. 頃予省方, 因詣茲山, 瞻禮三寶, 未至山麓, 地爲震動, 行入洞門, 瑞氣彌亘, 祥雲繚繞. 天雨四花, 大如桐葉; 甘露普灑, 草木如沐. 日色黃薄, 眼界皆成金色. 異香薰暢, 放大光明, 熾耀山谷. 仙鶴雙飛, 盤旋雲際. 山中諸刹, 舍利分身, 五色悉備. 及設明揚勝會, 如上種種奇瑞重現. 又有曇無竭菩薩, 現無數小相, 復現大相, 其長參天.”

힌 부분이다. 이는 1297년에 작성된 민지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⁴⁶⁾

②는 총 8가지의 신이영응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묘법연화경』 권1의 「서품」 등에서 확인되는 대승불교에서 흔히 열거되는 서상을 의미한다.⁴⁷⁾ 물론 이 중에서 ⑦의 선학부분은 도교와 신선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⑧의 사리분신 역시 대승경전에서 일반적으로 살피지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①~⑥까지는 대승경전이 설해될 때의 서상표현이나, 또는 붓다가 중요한 행위나 가르침을 줄 때 발생하는 이적의 양상이다. 즉 이러한 신이영응이 얼마나 사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내포적인 상징성이 세조를 붓다의 대리자와 같은 호불왕(好佛王)으로 인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즉 세조는 불법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불교군주로서 붓다에게 불기(佛記: 受記)와 같은 인정을 받는 존재인 것이다.⁴⁸⁾

②의 내용을 보면 ‘산록’과 ‘동문’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이영응의 대부분은 세조의 어가가 금강산 동구에 도착한 3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②의 마지막에는 8종의 신이영응 현상에 기뻐한 세조가 명양승회를 베풀고 있다. 여기에서 명양승회가 어떤 법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3월 21일의 기록에 따르면 “간경도감에 명하여 수록회를 베풀게 하였다”⁴⁹⁾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명양승회는 천지명양수록재회(天地冥陽水陸齋會)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특히 이 수록재의 기록 앞에는 세조가 “환지표훈사(還至表訓寺)”라고 하여 표훈사를 참배하고 돌아온 사실이 적혀 있다. 1398년(태조 7) 표훈사가 상원사와 더불어 수록

46) 振興會資料, 「史傳: 金剛山楡帖寺事蹟記-楡帖寺寄本」, 『佛敎振興會月報』 제1권 7호(1916), p.42.

47) 『妙法蓮華經』卷1, 「序品第一」(『大正藏』9, p.2中), “爾時世尊, 四眾圍遶, 供養, 恭敬, 尊重, 讚歎。為諸菩薩說大乘經, 名無量義, 敎菩薩法, 佛所護念。佛說此經已, 結加趺坐, 入於無量義處三昧, 身心不動。是時天雨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 而散佛上、及諸大眾。普佛世界, 六種震動。”

48) 韓國佛敎의 佛緣에 대한 強調에는 佛記에 대한 양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皇龍寺九層塔」(『大正藏』49, p.990下), “(文殊又云。)汝國王是天竺刹利種。王預受佛記。”

49)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3月 21日 壬戌 1번째 記事, “命刊經都監, 設水陸會。”

사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⁵⁰⁾ 이 수록재는 표훈사에서 거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명양승회는 3월 21일에 베풀어진 행사로 판단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위의 인용문에는 명양승회가 베풀어진 이후에 8종의 신이영응이 재차 재현되었고, 이를 기뻐한 세조가 금강산의 각 사암에 중미(中米) 3백석과 나미(糯米) 10석 그리고 호마(胡麻) 20석을 보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⁵¹⁾

이 기록의 이후를 보면, 세조가 경험한 신이영응과 유사한 이적은 오대산 상원사에서도 상당부분 재현된다. 한 가지도 쉽지 않은 신이영응이 단기간에 연거푸 3차례나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금강산과 오대산이라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성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호종대신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허구로 치부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중지하고, 그 내포의미가 세조에 대한 불교적인 권위부여라는 점만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조는 계유정난에 의해서 집권한 비정통 군주이다. 이런 점에서 적장자상속을 주장하는 유교적인 문화구조 속에서는 권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세조와 관련된 금강산과 오대산의 신이영응구조는 바로 이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유교적인 문제점을 불교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측면이 인지된다는 말이다.

마지막 ③은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에 대한 내용이다. 인용문을 보면 세조는 담무갈의 권속들로 추정되는 소상을 먼저 보고, 대상으로 나타난 담무갈보살을 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표현된 것을 보면, 이것이 구체적인 보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이한 자연현상과 관련된 측면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와

50) 車長燮, 「三和寺 國行水陸齋의 배경과 전개」, 『三和寺와 國行水陸大齋-2008 東海市 三和寺 國行水陸大齋 學術大會論文集』(東海: 三和寺·東海市·[社]國際亞細亞民俗學會, 2008), pp.45-54; 한상길, 「朝鮮時代 水陸齋 設行의 사회적 의미」, 『三和寺와 國行水陸大齋』(東海: 三和寺國行水陸大齋保存會·東海市, 2009), pp.38-45.

51)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3月 21日 壬戌 2번째 記事, “傳于戶曹曰: “中米三百石、糯米十石、胡麻二十石、施于金剛山諸寺。”

같은 현상을 다른 장소에서 목격한 듯한 기록으로 현재 강희맹의 <금강산서기송(金剛山瑞氣頌)>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이의 내용을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 **3月 21日**에 금성현에 이르러 천표(天表)를 양견(仰見)하니 동북방에 황운(黃雲)이 얽히고설키면서 그윽하고 자욱하게 끼여 태양빛을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상서로운 바람이 허공을 쓸어버리자 하늘의 형상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이때) 황운으로 있던 것이 변하여 백서(白瑞)가 되고 (그것이) 갈라져 5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단이 작게 구부러져 말린 형상이 도라수(兜羅手)나 오륜지(五輪指)를 구부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펼쳐지고 오그라짐이 자재하고, 뒤집어지고 바로 뒀이 무방하였습니다. 하물며 또 길게 펼쳐져 늘어나고 곧게는 천복(天腹)을 가로 질러 서북으로 향했습니다. 또 남방에는 백기(白氣)가 평평하게 퍼져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이외에도) 푸른 해무리가 점점이 망울져 농익은 것이 비단무늬와 같았습니다. (이때) 일색이 휘황하여 산천초목이 변하여 금색계의 상(相)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서옹이 비록 많았지만, 신이 목격한 바로는 이것이 (가장) 수승합니다. 신이 여러 좌우에 물으니, 서운은 곧 금강(산)에 당(當)하였고, 이는 또 **전하께서 산록에 주필(駐蹕)하던 날**이었습니다. 신은 경변(慶忭)함을 이기지 못하여 정하(庭下)에서 막배(膜拜)를 올렸습니다.⁵²⁾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은 담무갈보살이 직접 현상한 것이 아니라 서기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 담무갈보살의 친견장소와 관련해서, 『동국여지승람』 권47의 정양사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금강산의 담무갈보살 친견은 정양사 앞쪽의 배재(拜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³⁾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

52) 『世祖實錄』卷38, 1466年(世祖 12) 3月 27日 戊辰 1번째 記事, “臣三月二十一日至金城縣, 仰見天表, 東北方, 黃雲繚繞, 沖融掩靄, 豁藏日彩. 俄而祥飈掃空, 天形微露, 所有黃雲, 變成白瑞, 岐爲五支. 末端稍句, 狀如兜羅手, 屈五輪指, 舒卷自在, 倒正無方, 況又舒長引曳, 直跨天腹, 向于西北. 又於南方, 白氣平鋪, 明朗炯耀, 靑暈點綴, 爛如文錦, 日色輝煌, 山川草木, 變爲金色界相. 近來瑞應雖多, 臣所目擊, 此爲殊勝. 臣問諸左右, 瑞雲直當金剛, 此又殿下駐蹕山麓之日也. 臣不勝慶忭, 膜拜庭下.”

견은 정양사를 참배하는 3월 21일에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강희맹의 서기에 대한 진술 역시 3월 21일의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 정합성이 확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강희맹의 진술에는 “전하께서 산록에 주필하던 날”이라고 하여 이것이 20일의 내용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강희맹이 세조를 직접 호종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강희맹이 진술의 모두(冒頭)에서 날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산록’에 대한 부분은 세조와 함께하지 못한 강희맹의 착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의 상징은 앞선 8종의 신이영웅과 마찬가지로 왕권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상원사총림에서의 사리(분신)·우화·감로·이향(異香) 등의 이적이 앞선 금강산에서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원사로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금강산과 상원사의 불교적인 신이영웅구조가 하나의 연결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자의 이해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왕건의 담무갈보살 친견설화와 세조

세조의 담무갈보살 친견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고려 태조의 담무갈보살 친견설화이다. 이 내용은 『동국여지승람』 권47의 「강원도-회양도호부-산천-정양사」에 수록되어 있다.

정양사: 표훈사 북쪽에 있으니 산의 正脉이다. 그러므로 (정양사)라 이름한 것이다. 지계(地界)가 높아 먼 산의 내외 모든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내려다) 보인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이 산에 오르니 담무갈(보살)이 석상(石上)에서 방광하며 현신하였다. 태조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정례하고는 이에 이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절

53)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뒤의 언덕을 방광대(放光臺)라 하고 고개 앞을 배재라고 하는 것이다.⁵⁴⁾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전기인 1481년(성종 12)에 제작된 지리서이다. 이런 점에서 왕건의 담무갈 친견설화의 성립이 상당히 이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2016년 2월 22일에 보물 제1887호로 지정된 고려불화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에는 왕건의 금강산 담무갈 보살 예배모습이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이 불화는 어딘가에 꽃았던 축을 갖추고 있는데, 축이 있는 아래쪽에는 “대덕11년정미8월일근서(大德十一年丁未八月日謹書) 노영동원복득부(盧英同願福得付) 금칠서(金漆書)”라고 쓰인 명문이 있다.⁵⁵⁾ 이를 통해서 제작자의 이름이 노영이라는 것과 1307년이라는 분명한 연대를 알 수 있다. 즉 왕건의 담무갈 친견설화는 최소한 1307년 이전의 고려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설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까? 그러나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금강산-담무갈’이라는 불교적인 신앙구조의 완성이 원간섭기(1259~1356)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왕건(877~943, 재위:918~943)과는 300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강산의 개척시기가 원간섭기이며, 이것이 인접한 ‘오대산-문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는 1991년 허홍식의 지적에서 시작된다.⁵⁶⁾ 또 금강산이라는 명칭이 확립되는 것은 고려후기라는 연구 역시 1993년 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김탁은 민지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1297년)가 나오기

54) 『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山川」, “正陽寺: 在表訓寺北即山之正脉故名. 地界高迥山之內外諸峯一一盡觀. 諺云, 高麗太祖登此山, 曇無竭現身石上放光. 太祖率臣僚頂禮仍勸此寺. 故寺後岡曰放光臺, 前嶺曰拜帖.”; 『新增東國輿地勝覽』47, 「江原道-淮陽都護府-山川」.

55)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佛畫(解說篇)』(서울: 時空社, 1997), p.69.

56) 許興植, 「指空의 遊歷과 定着」, 『伽山學報』 제1호(1991), p.92; 許興植, 「제1장 指空禪賢」,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서울: 一潮閣, 1997), pp.47-50; 廉仲燮,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韓國佛敎學』 제66호(2013), p.16; 廉仲燮, 「懶翁에게서 살펴지는 ‘五臺山佛敎’의 영향」, 『溫知論叢』 제39집(2014), pp.183-184.

이전까지는, 금강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⁵⁷⁾ 또 2012년에는 김창현에 의해서 역시 금강산이 원간섭기에 성립했다는 점이 체계적으로 재지적 되었다.⁵⁸⁾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2016년 염중섭은 금강산과 관련된 현존하는 모든 문헌자료들을 검토해서, ‘금강산-담무갈 신앙’의 완성이 원간섭기 초기라는 점을 고증해냈다.⁵⁹⁾ 이를 통해서 본다면 왕건의 담무갈 친견은 설화라는 점이 분명해진다.⁶⁰⁾

실제로 고려시대 이곡(1298~1351)의 『가정집』 권5에는 1349년의 기록으로 배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설이 수록되어 있다.

배재에 오르니 천랑기청(天朗氣清)해졌다. 산이 밝아 깎아 놓은 것 같은 데 소위 12,000봉이 역력하여 가히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무릇 이 산에 들어오는 이들은 반드시 이 재를 지나쳐야 하는데, 재에 오르면 산이 보이고 산을 보게 되면 불각지간에 머리를 조아려 이마를 대게 된다. 그러므로 배재라고 하는 것이다.⁶¹⁾

이 기록은 배재가 왕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에 오르면 12,000봉이 역력히 보이면서 그 경치에 취해서 절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인물인 강희맹(1424~1483)의 시 <송일암귀금강산(送一菴歸金剛山)>에서도 일부가 확인된다.

이때 속자(俗子)가 깊은 반성을 해서 단발하고 (속세의) 굴레를 버릴 생각하게 된다네. 이윽고 배재에 올라 진용을 보고는 (금강산의 주봉인) 비

57) 金鐸, 「金剛山の由來와 그 宗教的 意味」, 『東洋古典研究』 제1집(1993), p.228.

58) 김창현, 「高麗時代 金剛山과 그 佛教信仰」, 『地域과 歷史』 제31호(2012), p.203.

59) 廉仲燮, 「魯英筆 高麗 太祖 曇無竭菩薩 禮拜圖의 타당성 검토」, 『國學研究』 제30집(2016), p.574·579.

60) ‘皆骨山-曇無竭’의 구조가 보이는 가장 빠른 자료는, 1170~1197년 사이의 기록인 『補閑集』 卷上의 “變爲皆骨倚天寒。無竭眞身住此山。”이라는 崔滋의 外祖父 金禮卿의 詩이다. 그러나 ‘金剛山-曇無竭’의 구조는 元干涉期 初가 되어서야 완성된다.

61) 『稼亭集』 卷5, “登拜帖。天朗氣清。山明如削。所謂一萬二千峯。歷歷可數也。凡入此山。必由此帖。登帖則見山。見山則不覺稽顙。故曰拜帖。”; 『東文選』 卷71, 「記-東遊記」; 『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山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山川」.

로봉을 경예(敬禮)하니 양 갈래로 뚫은 머리 (저절로) 떨어진다네[출가
삭발을 상징하는 표현임].⁶²⁾

이 시를 보면, 배재에서 보는 진용은 담무갈보살이라기 보다는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는 12,000봉과 금강산의 탈속적인 전경으로 이해된다. 이는 서기수(徐淇修, 1771~1834)의 『소재집』 권1의 시 <배재>에서도, “이 무릎은 굽히지 않은지 오래인데 이 마음은 무슨 일로 놀라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인지해 볼 수가 있다.⁶³⁾ 즉 배재는 왕건이 절을 한 곳이기 때문에 배재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강산의 경치에 취해서 절을 하게 되는 곳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왕건의 담무갈 친견설화는 후일 배재와 연관되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왕건에게 금강산 담무갈보살 친견이라는 설화가 부가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염증섭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태조는 신라왕계를 표방해서 혈연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또 미륵과 자신을 연결시켜 불연을 강조한 궁예를 제거하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또 태조와 경쟁하던 견훤 역시 불연의 강조차원에서 미륵을 표방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태조도 <훈요십조>와 같은 실질적인 측면 이외에도 신비적으로 불연을 강조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상은 불교가 강조되던 시대에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태조라는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새왕조를 개창하고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적인 신성화 노력과 변증을 요청 받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불연을 통한 신성화 변증 중 일부가, 후일의 금강산-담무갈신앙과 결합하면서 태조의 담무갈보살 친견 및 예배라는 설화구조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 운운 …

62) 『續東文選』卷4, 「七言古詩-送一菴歸金剛山」, “爾時俗子發深省。斷髮從思棄羈絆。俄登拜謁覩眞容。敬禮毗盧頭角熱。”

63) 『蘇齋集』卷1, 「詩」, “此膝久不屈。此心何事驚。”

태조의 담무갈보살 친견은, ‘태조의 불연을 통한 건국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과 ‘금강산불교의 권위확보’라는 두 가지 이익구조가 상호 맞물린,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⁶⁴⁾

왕건에게 새왕조 개창의 당위성이 필요했다면 세조에게는 정변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세조 당시에는 왕건의 담무갈친견은 금강산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유전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왕건의 담무갈친견은 세조의 담무갈친견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무갈친견 이야기들은 금강산과 인접한 또 다른 성산인 오대산으로 전파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세조가 오대산에서 문수를 친견해서 창병을 치유했다는 설화로 완성되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III. 상원사 거등과 관련된 설화 분석

1. 상원사와 관련된 세조설화

세조의 상원사중창과 관련해서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설화가 유전되고 있다.⁶⁵⁾

첫째는 상원사를 찾은 세조를 사육신 쪽 자객이 시해하기 위해서 불단 밑에 숨어 있었는데, 고양이 나타나 세조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이상하게 여긴 세조에 의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고양이를 잘 보살펴주라는 의미에서 강릉에 땅이 하사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묘전(養猫田)’ 또는 ‘묘전(猫田)’이라는 것이다. 또 상원사에는 현재도 고양이석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세조를 구한 고양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다.

64) 康仲燮, 「魯英筆高麗太祖曇無竭菩薩禮拜圖의 타당성 검토」, 『國學研究』 제30집(2016), pp.588-589.

65) 李能和, 「月精寺見文殊童子」, 『譯註 朝鮮佛教通史5』(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pp.625-628; 妓玄, 『五臺山을 가다』(서울: 曹溪宗出版社, 2016), pp.76-80, 264-266.

둘째는 세조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顯德)왕후의 저주와 관련된 창병으로 고통 받던 상황에서, 상원사 앞 계곡물에 목욕하다가 문수동자를 만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세조는 국보 제221호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을 조성하고, 자신의 피고름이 묻은 어의를 복장에 봉안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보물 제739호로 지정되어 있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 명주적삼과 생명주적삼이라는 것이다.⁶⁶⁾ 또 상원사의 입구에는 세조의 목욕을 방증하는 유물로 ‘관대(冠帶)길이’라는 석조대(石造臺) 유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설화는 <상원사중창기>와 <상원사중창권선문>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주목된다.

2. 고양이가 설화에 대한 검토

첫째의 고양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자. <상원사중창기>에는 다음과 같이 상원사가 관할하는 강릉에 위치한 논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강릉에는 예로부터 봉전(葑田) 수백결이 있었는데, (학열)공이 청하여 (상원)사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봉전을) 개간하여 수전(水田: 논)이 되도록 하고, 파종하여 해마다 수백석을 수확해 (상원사)의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⁶⁷⁾

이 기록을 보면 강릉의 논의 묘전 이야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전은 ‘줄’이라는 풀의 뿌리가 여러 해 얽히고 쌓여 그 위에 흙이 올라가 형성된 밭을 의미한다. 이렇다보니 봉전은 물이 많고 논으로의 전환도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동시에 물이 많다는 의미에서 봉전이 묘전으로 불리웠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묘전의 발음이, 언젠가 만들어지게 되는 고양이

66)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聖寶博物館 圖錄』(서울: 예경, 2002), pp.66-69.

67)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江陵舊有葑田數百結。公請屬於寺。治爲水田。播種數百石。歲收其熟。以爲常住之資。”

이 설화와 결합하면서 猫田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현재 상원사 문수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이 석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이것은 사자를 보지 못한 장인들이, 사자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 실제로 경주 분황사모전석탑(국보 제30호)의 암사자는 물개모양으로 만들어져 속칭 물개로 불린 일이 있으며, 남산 탑골의 부처바위(탑골 마애불상군, 보물 제201호)에 부조된 수사자는 천마로 오인되기도 했다. 또 송광사 일주문 등에 조각된 石사자는 레밍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⁶⁸⁾ 그러나 상원사의 고양이상을 자세히 보면, 지금도 한 마리의 목에 갈기를 표현한 두툼한 측면이 확인된다. 고양이는 암수의 외형적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는 사자에 대한 졸렬한 표현에서 온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실제로 세조의 상원사 거동에는 많은 종친과 군신들이 대동되었다. 또 학열과 상원사 및 오대산불교 전체의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낙성식의 주불전 불단에 자객이 매복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또 만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낙성식을 주관한 학열 등에게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원사중창기>에 따르면 학열은 낙성식 날과 그 다음날인 18일에 세조로부터 치하를 받고 있다.⁷⁰⁾ 특히 18일의 치하는 학열 등 공로가 큰 승려들이 오대산 행궁으로 가서 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조가 학열이 주도한⁷¹⁾ 상원사중창 및 낙성식과 관련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8일을 마지막으로 세조는 오대산을 떠나게 된다. 즉 현존하는 기록의 정합성에 따르면, 세조의 상원사 거동에는 어떠한 시해기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68) 玆玄, 『寺刹의 祕密』(서울: 다앤북스, 2014), pp.264-269.

69) 玆玄, 『五臺山을 가다』(서울: 曹溪宗出版社, 2016), pp.265-266.

70)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仍召公賜對移時。公舉山中故迹。本寺興廢始末。與夫佛祖東西密付心法之要。談鋒迅利。理致邃奧。言皆稱旨。世祖大悅。卽賜內帑布帛。以賁其會。…明日。學悅等率徒衆。詣行宮謝恩。”

71) 같은 책, “太王太妃殿下傳旨。僧言允當。卽啓世祖。命僧學悅。主營繕之務。”

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중국불교의 전통 속에서 불전 앞에 암수의 사자를 조각하는 표현이,⁷²⁾ 사자를 보지 못한 장인에 의해서 고양이처럼 조성된 것을 원인으로 후대에 파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문수친견 설화에 대한 검토

둘째의 세조 창병이 목욕과정에서 출몰한 문수동자에 의해서 완쾌되었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만일 세조가 상원사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창병이 치료되어 문수동자상이 조성된 것이라면, 이 보살상의 복장발원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조가 등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984년 7월 19일의 복장개봉을 통해 드러난 <의숙공주발원문(懿淑公主發願文)>은 전혀 다른 상황만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466년 2월에 세조의 둘째 딸인 의숙(懿淑)공주와 남편 정현조(鄭顯祖)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득남을 위해서 문수동자상을 조성했다는 것이 전부이다.⁷³⁾ 즉 여기에서의 문수동자는 세조가 친견한 대상이 아니라, 의숙공주와 정현조에 의한 ‘득남의 기원대상’일 뿐인 것이다.

신라하대 오대산의 신앙구조를 확립하고 상원사를 창건하는 인물은 보천과 효명이다.⁷⁴⁾ 이들은 상원사에서 신이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문수보살이 36가지로 변현(變現)하는 이적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수동자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36가지 변현의 기록은 『삼국유사』 권3의 「대산오만진신」과 『오대산사적기』 중 민지의 찬술 부분인⁷⁵⁾ 「오대산성적병신라정신태자효명태자전기」에 수록되어 있다.⁷⁶⁾ 양자는 대동소이한데, 이 중 「대산오

72) 廉仲燮, 「多寶塔의 경전적인 건립시점 고찰-多寶塔과 法華思想의 의미구현을 중심으로」, 『韓國禪學』 제29호(2011), pp.452-453.

73)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聖寶博物館 圖錄』(서울: 예경, 2002), p.46.

74) 『三國遺事』 卷3, 「臺山五萬真身」·「溟州(古河西府也)五臺山寶陀徒太子傳記」(『大正藏』49, p.998中-1000上); 『五臺山事蹟記』,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75) 韓國木簡學會 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平昌: 五臺山月精寺, 2014), pp.2-3; 廉仲燮, 「慈藏의 傳記資料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15), pp.71-76.

76) 『五臺山事蹟記』,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만진신」의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인시에⁷⁷⁾ 문수대성이 진여원(지금의 상원)에서, 36종의 형태로 변현(變現)하였다. 1혹시는 불면형으로 나타나고, 2혹은 보주형을 짓고, 3혹은 불안형을 짓고, 4혹은 불수형을 짓고, 5혹은 보탑형을 짓고, 6혹은 만불두형이고, 7혹은 만등형을 짓고, 8혹은 금교형을 짓고, 9혹은 금교형을 짓고, 10혹은 금중형을 짓고, 11혹은 신통형을 짓고, 12혹은 금루형을 짓고, 13혹은 금륜형을 짓고, 14혹은 금강저형을 짓고, 15혹은 금용형을 짓고, 16혹은 금전형을 짓고, 17혹 오색광명형이고, 18혹 오색원광형이고, 19혹 길상초형이고, 20혹 청연화형이고, 21혹은 금전형을 짓고, 22혹은 은전형을 짓고, 23혹은 불족형을 짓고, 24혹은 뇌전형을 짓고, 25혹은 (여)래용출형이고, 26혹은 지신용출형이고, 27혹은 금봉형을 짓고, 28혹은 금오형을 짓고, 29혹은 마산사자형이고, 30혹은 계산봉형이고, 31혹은 청룡형을 짓고, 32혹은 백상형을 짓고, 33혹은 작조형을 짓고, 34혹은 우산사자형이고, 35혹은 유저형을 짓고, 36혹은 청사형을 지었다.⁷⁸⁾

물론 문수동자상의 복장유물에는 ‘피 묻은 적삼’으로 유명한 명주적삼과 생명주적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신미의 ‘권선문’을 보면, 상원사중창과 관련해서 세조가 신미 등에게 어의 몇 벌을 내려주는 대목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7) 寅時, 즉 새벽 3~5時란 새벽禮佛과 관련된 측면이다.

廉仲燮, 「한강의 시원 정립에 관한 불교적인 영향 고찰」, 『韓國禪學』 제25호(2010), pp.202-204.

78) 『三國遺事』卷3, 「臺山五萬真身」(『大正藏』49, p.999上), “每日寅朝. 文殊大聖. 到眞如院. 今上院. 變現三十六種形. 或時現佛面形. 或作寶珠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寶塔形. 或萬佛頭形. 或作萬燈形. 或作金橋形. 或作金鼓形. 或作金鍾形. 或作神通形. 或作金樓形. 或作金輪形. 或作金剛柄形. 或作金甕形. 或作金鈿形. 或五色光明形. 或五色圓光形. 或吉祥草形. 或青蓮花形. 或作金田形. 或作銀田形. 或作佛足形. 或作雷電形. 或來湧出形. 或地神湧出形. 或作金鳳形. 或作金鳥形. 或馬產獅子形. 或雞產鳳形. 或作青龍形. 或作白象形. 或作鵲鳥形. 或牛產獅子形. 或作遊猪形. 或作青蛇形”.; 『五臺山事跡記』,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文殊大聖. 每日寅朝. 出現化作三十六形. 或作佛面形. 或作佛眼形. 或作佛手形. 或作佛足形. 或作萬佛(頭)形. 或作萬燈光形. 或作寶塔形. 或作金鼓形. 或作金鐘形. 或作金輪形. 或作金樓形. 或作金橋形. 或作金甕形. 或作金鈿形. 或作金田形. 或作銀田形. 或作金(剛)柄形. 或作寶珠形. 或作五色圓光形. 或作五色光明形. 或作吉祥草形. 或作青蓮花形. 或作出雷形. 或作家中來湧出形. 或作家中放五色光形. 或作地神湧出形. 或作神通形. 或作金鳳形. 或作金鳥形. 或作雀鳥形. 或作青(龍)蛇形. 或作白象形. 或作遊猪形. 或作馬產獅子形. 或作牛產獅子形. 或作雞產鳳形.”

양전이 이것을 듣고 특별히 운명(綸命)을 내려서 말하였다. “승려들이 나를 위하여 가람을 창건코자 하니, 내가 마땅히 도와서 국민과 더불어 이로움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는) **어의 약간**을 내려주시고는, 미와 포로 토목공사의 비용을 주도록 명하였다.⁷⁹⁾

세조가 어의를 하사하는 상황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중창불사에 권위를 부여하는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즉 어의를 통해서 중창불사를 용이하게 하고, 또 권선도 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는 세조가 창병이 치료되어서, 당신이 친견한 문수동자상을 만들고 어의를 복장했다는 것과는 또 다른 흐름 속에 어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조가 창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세조가 고성온천과 온양온천의 행궁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⁸⁰⁾ 또 사도세자나 정조 역시 창병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조선왕실의 가족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조가 상원사의 중창과 겹쳐 치병의 발원차원에서 창병의 흔적이 남아 있는 어의를 주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어의는 중창불사가 완료되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보관하거나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466년 2월 문수동자상의 점안과정에서 복장물로 처리해, 세조의 치병발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세조가 상원사 행차시에 문수동자를 친견해서 창병을 나은 것이 문수동자상의 조성배경이라면, 상의 조성은 세조가 행차한 윤3월 17일 이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의숙공주발원문>은 이보다 2달 앞인 1466년 2월을 적시하고 있다.⁸¹⁾ 또 세조는 이때의 상원사 거동 이전에는 상원사를 찾은 기록이 없다. 실제로 상원사중창 이전에는 상원사가 화재로 피해를 겪어 있던 상황이며,⁸²⁾ 이 때문에 중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⁸³⁾ 세조가 행차할 이유는

79)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勸善文-兩殿聞之特降綸命若曰。僧等爲我欲創伽藍。余當補助與國人廣利。出御衣若干襲。命輸米布土木之費。”

80) 世祖는 1466년 3월 26일부터 閏3월 5일까지 高城溫井 行宮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溫泉을 하는 모습이 『世祖實錄』 권38을 통해 확인된다.

81)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聖寶博物館 圖錄』(서울: 예경, 2002), p.46.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록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세조가 문수에 의해서 창병이 낫게 되어 문수동자상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설화일 개연성이 크다.

〈상원사중창기〉에 의하면, 정희왕후와 신미에 의해서 상원사가 세조의 원찰로 중창되는 원인은 10일 동안 지속된 세조의 병환이었다.⁸⁴⁾ 그러나 〈상원사중창기〉에 등장하는, ‘세조가 10일 동안 앓았고 이후 상원사중창이 본격화되자 차도가 있었다는 병’은 창병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상원사중창기〉의 흐름을 보면, 정희왕후가 붓다의 가호를 구해서 극복하고자 한 병은 창병과 같이 고질적인 병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급박한 병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세조의 상원사 목욕설화와 관련해서는, 현재에도 상원사 입구에 세조가 목욕을 위해서 의관을 벗어놓았다는 관대걸이 유적이 있다. 관대걸이는 당시에 세조의 목욕을 미리 예상하고 만들어 놨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후대에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세조가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소의 많은 종친과 신료들을 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조의 의관이 바닥에 놓였을 리는 만무하다. 즉 목욕이 사실이더라도 어의는 어가 등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세조의 어의와는 무관한 다른 표지석이 후대에 변형되어 이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조가 어의를 하사한 내용과 〈의숙공주발원문〉 등에 근거해 볼 때, 세조의 목욕과 문수친견은 후대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말이다.

82) 『世宗實錄』卷30, 1425年(世宗 7) 12月 19日 甲申 8번째 記事, “江原道水陸社上元寺災。”

83) 『拭疣集』卷2, 「記類-上元寺重創記」, “其中臺之南。有寺曰上元。再罹鬱攸之災。時則有幹善之士。從而創造。隨廢隨起。然其制陝狹而卑塞。僧不樂居。”

84) 같은 책, “天順建元之八年四月。我世祖惠莊大王。不豫彌旬。太王太妃殿下憂懼。遣內官咨於慧覺尊者信眉。大禪師學悅等。雖中外寺社。作法祝上。皆然。于欲於名山勝地。創一伽藍。以爲別額之所。如有國家祈請。則就之於此。卿等遊歷四方。必知其處。其缺實聞。信眉等對曰。臺山。我國名山。而中臺上元。地德尤奇。僧徒結際。必有警枕之異。不幸廚人失火。化主力寡。急於取辦。僅得庇人。若因其舊基改構。廣其規制。以爲一山名刹。當其祈祝。別降香幣作佛事。無如此寺便。太王太妃殿下傳旨。僧言允當。即啓世祖。命僧學悅。主營締之務。”

IV. 결론 - 세조 설화의 상징과 내포의미

세조의 강원도 거동과 관련된 금강산과 오대산에서의 신이영웅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종교적 감응을 단순히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오류의 개연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이영웅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신이영웅 구조 속에,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는 공통 코드가 존재한다는 점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즉 금강산과 오대산의 신이영웅 속에는 세조의 정당성이라는 불교적인 방어기제가 상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세조는 금강산에서 불교적인 다양한 이적을 경험하고 담무갈보살을 친견한다. 이 중 다양한 이적은 이후의 오대산의 신이영웅과도 연관되는 불연의 강조에 따른 세조 보위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또 담무갈보살 친견은 당시 선행하던 고려 태조의 담무갈 친견설화의 연장선상에서 세조의 정변 당위성을 변증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해석이 부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조의 오대산 상원사에서의 두 가지 설화와 관련된 상징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세조의 창병에 따른 문수친견설화는, 세조의 창병이 꿈에 나타난 현덕왕후의 왕위찬탈에 대한 저주와 침 뱀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덕왕후는 1441년에 사망했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1455년이다. 즉 양자사이에 14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덕왕후의 저주가 사실일리는 없다. 즉 이 설화는 세조의 아킬레스건인 단종을 죽인 것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고양이의 설화에서도 재확인된다. 이 설화에서 등장하는 자객은 사육신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육신의 죽음은 1456년의 일로, 세조가 상원사를 찾는 1465년과는 9년의 시차가 있다. 이 역시 연속

선상에서의 이해로는 시간적인 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붓다의 가피는 고양이를 통해서 세조를 구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설화의 상징은 사육신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조의 강원도 거동의 배경이 되는 <상원사중창권선문>의 모두(冒頭)를 보면, “우리 성상이 천명을 받으사 동하(東夏)를 재조(再造)하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⁸⁵⁾ 이는 『시경』의 천명미상설에 입각해서⁸⁶⁾ 천명이 세조에게 임하여, 흔들리던 단종시대가 동하 즉 동쪽의 소중화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권선문’은 처음부터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전제의 연장선상 위에 세조의 금강산과 오대산의 신이영웅 역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적인 정당성 확보의 부족을 불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세조의 강원도 거동에서 확인되는 신이영웅 구조의 상징과 내포의미라는 말이다.

85)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勸善文-聖上誕膺天命。再造東夏。”·“우리聖上이키天命을받조 오샤。東嶽나라홀다시밍크르 시니。”

86) 『詩經』, 「大雅-文王之什·文王」.

참고문헌

1. 원전류

- 『妙法蓮華經』, 『大正藏』9.
-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9.
-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10.
- 『三國遺事』, 『大正藏』49.
- 『續高僧傳』, 『大正藏』50.

〈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

- 『稼亭集』.
- 『東國輿地勝覽』.
- 『東文選』.
- 『補閑集』.
- 『世祖實錄』.
- 『世宗實錄』.
- 『穌齋集』.
- 『續東文選』.
- 『詩經』.
- 『拭疣集』.
- 『新增東國輿地勝覽』.
- 『五臺山事蹟記』.

- 李能和, 『譯註 朝鮮佛教通史5』,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10.
- 振興會資料, 「史傳: 金剛山楡岾寺事蹟記-楡岾寺寄本」, 『佛教振興會月報』 제1권 7호 (1916).

2. 단행본

-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의 佛畫(解說篇)』, 서울: 時空社, 1997.
- 月精寺聖寶博物館 編, 『月精寺聖寶博物館 圖錄』, 서울: 예경, 2002.
- 玆玄, 『寺刹의 祕密』, 서울: 다앤박스, 2014.
- —, 『五臺山을 가다』, 서울: 曹溪宗出版社, 2016.
-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3. 논문

- 廉仲燮, 「慈藏의 傳記資料 研究」, 서울: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15.
- 車長燮, 「三和寺 國行水陸齋의 배경과 전개」, 『三和寺와 國行水陸大齋-2008 東海市 三和寺 國行水陸大齋 學術大會論文集』, 東海: 三和寺·東海市·[社]國際亞細亞民俗學會, 2008.
- 廉仲燮, 「世祖의 上院寺重創과 上院寺重創勸善文에 대한 검토」, 『訓民正音(한글)과 佛敎』, 서울: 韓國佛敎學會 訓民正音 頒布[1446] 570週年 特別企劃 세미나 資料集, 2016.
- 한상길, 「朝鮮時代 水陸齋 設行의 사회적 의미」, 『三和寺와 國行水陸大齋』, 東海: 三和寺國行水陸大齋保存會·東海市, 2009.
- 韓國木簡學會 編, 『『五臺山事蹟』의 甲·乙·丙·丁本』, 『韓國木簡學會 하계워크샵 資料集』, 平昌: 五臺山 月精寺, 2014.
- 金鐸, 「金剛山の 由來와 그 宗教的 意味」, 『東洋古典研究』 제1집(1993).
- 김창현, 「高麗時代 金剛山과 그 佛敎信仰」, 『地域과 歷史』 제31호(2012).
- 廉仲燮, 「懶翁에게서 살펴지는 ‘五臺山佛敎’의 영향」, 『溫知論叢』 제39집(2014).
- —, 「魯英筆 高麗 太祖 曇無竭菩薩 禮拜圖의 타당성 검토」, 『國學研究』 제30집(2016).
- —, 「多寶塔의 경전적인 건립시점 고찰-多寶塔과 法華思想의 의미구현을 중심으로」, 『韓國禪學』 제29호(2011).
- —, 「世祖의 上院寺重創과 上院寺重創勸善文에 대한 검토」, 『韓國佛敎學』 제81집(2017).
- —, 「五臺山 文殊華嚴 신앙의 특수성 고찰」, 『韓國佛敎學』 제63호(2012).
- —, 「慈藏의 五臺山 開創과 中臺 寂滅寶宮」, 『韓國佛敎學』 제66호(2013).

- —, 「慈藏의 中國五臺山行에서 살피지는 文殊의 가르침 검토」, 『佛敎學報』 제76집 (2016).
- —, 「한강의 시원 정립에 관한 불교적인 영향 고찰」, 『韓國禪學』 제25호(2010).
- —, 「한국불교 聖山인식의 시원과 전개-五臺山·金剛山·寶盖山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126호(2017).
- 許興植, 「指空의 遊歷과 定着」, 『伽山學報』 제1호(1991).

A Review on Myth of Siniyeongeung(神異靈應) during
King Sejo's Visit to Mt. Geumgangsán and
Sangwonsa Temple
- Centering on His Re-foundation of Sangwonsa and Visit to
Gangwon-do Province

Youm, Jung-seop (Ven. Ja-hyun)
Professor
Dept. of Buddhist Studies, Joongang Sangha Univ.

The Sangwonsa Temple was re-built by King Sejo of Joseon Dynasty as his wonchal(願刹) in 1456~66 through the suggestion of Ven. Sinmi(信眉) and Ven. Hageol(學悅). The completion ceremony was held on intercalary month to March 17, 1466 by lunar calendar in Sangwonsa.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y, King Sejo made a trip to Gangwon-do Province. In this process, he experienced several Buddhist Siniyeongeungs (spiritual miracles) in Mt. Geumgangsán and Mt. Odaesan and left myths about the miracles.

It is extraordinary that King Sejo experienced diverse Siniyeongeungs in the two Buddhist holy mountains during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course, there are simple mythical aspects in the stories, but the clear judgement is not easy because some were recorded even in *Sejo Sillok* (世祖實錄, *Annals of King Sejo*).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review the symbolic implications in such Siniyeongeung stories. First, in Chapter II, the implication of the Siniyeongeung that King Sejo experienced in Mt. Geumgangsán was examined. Especially, the record that he met Dharmodgata(曇無竭菩薩) face to face was reviewed from the view point that it is very similar to the story of Wanggeon(王建), the founder of

Goryeo Dynasty, who had met Dharmodgata in person. Through this, we can surmise that they might have tried to show the Buddhist validity for the kingship of the new Dynasty.

Next, in Chapter III, the myth about Sangwonsa was reviewed in relation with King Sejo. This story also seems to have the intention to justify the usurpation of King Sejo who was a Buddhist. In summary, the Siniyeongeungs that King Sejo experienced during his visit to Gangwon-do have the coherent intention to justify his kingship from the Buddhist view point.

Keywords

Dharmodgata, Mañjuśri, Odaesan, Wanggeon, Hagyeol, *Sangwonsa Jungchanggi*, *Odaesan Sangwonsa Jungchang Gwonseonmun*

2017년 03월 17일 투고
2017년 06월 11일 심사완료
2017년 06월 16일 게재확정